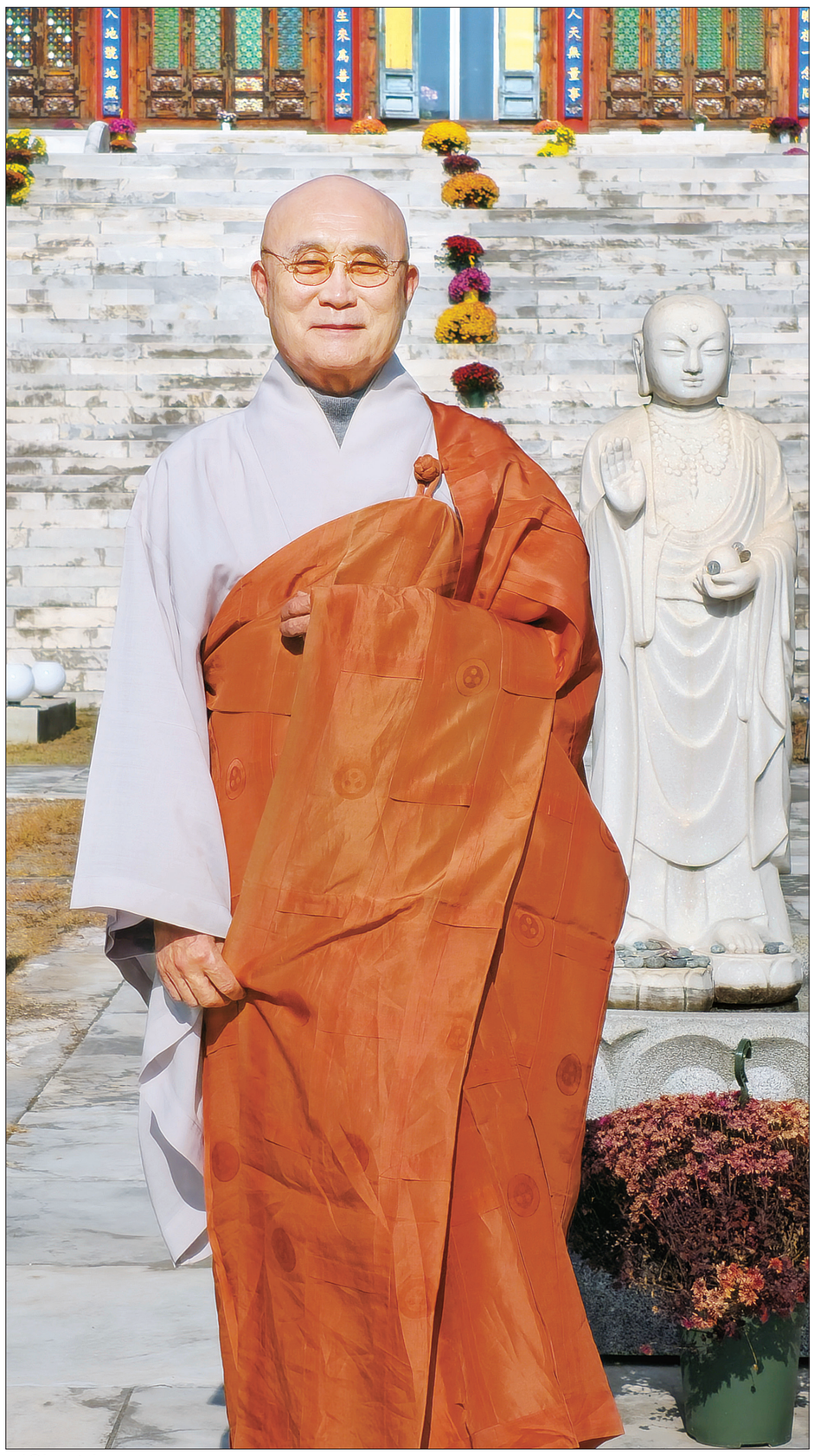
지상백고좌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좋아하되 집착 말고, 미워해도 오래 담지마라”



지원 스님은… 설악산 백담사에서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과 호계원장을 지냈으며, 제9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1983년 은평구에 삼보사를 창건하여 도심포교의 모범을 이뤘으며, 2006년 경기도 양주에 육지장사를 창건, 수행 기도도량으로 일궜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시집 〈장명등〉,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 〈지원 스님의 100세 건강법〉 등 다수가 있다.

도리산으로 가는 길은 화려하다. 굽이굽이 돌 때마다 가을이 빚어내는 빛깔이 달랐다. 육지장사는 남한 제일의 지장보살 도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웅전 앞에 서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인터뷰는 지원 스님이 주석하신 도리산 육지장사에서 진행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여쭈었다. 가을빛이 좋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명상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육지장사는 지장보살의 정신을 살려 창건한 사찰이다. 스님은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었기에 육지장사를 건립하면서 ‘만일지장기도’를 결사했다. 만일이면 30년이 걸린다. 이제 27년이 지났고, 2년 10개월 후엔 회향하게 된다.

〈지장경〉은 불교의 연기법인 인과응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읽기에 좋은 경전이라고 소개한다. 〈천수경〉도 정말 좋은 경이니 날마다 독송하기를 권했다.

“불교의 믿음의 과정은 ‘신해행증(信解行證)’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고, 셋째는 행하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고, 넷째는 증득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는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생각으로 짓는 행위 등 삼업(三業)을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수행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설악산 백담사에서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스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이 수행에 버팀목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지원 스님은 백장청규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은사스님은 중국의 백장 선사께서 말씀하신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항시 강조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절 살림을 꾸리다 보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땐 그것이 수행이었지요. 지금도 도량 청소하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하면서 살아요.”

지원 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안거를 수선했다. 무문관 수행을 하신 이유가 궁금했다.

“공직 봉사를 마무리하고 인생 총정리를 하기 위해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했어요. 그때가 세납 74세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문관은 독방생활을 하여야 하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도 가져갈 수 없어요. 사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님은 무문관에 입방할 때 48공안을 추려서 엮은 〈무문관〉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매일 공안 하나를 참구했다.

“무문관에서 수행할 때 하루에 공안 하나씩을 사유했어요. 〈무문관〉의 제1칙 조주구자(趙州狗子)부터 48칙 건봉일로(乾峰一路)까지 보았어요.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물었는데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답했어요. 이것이 제1칙 조주구자(趙州狗子)인데, ‘무(無)’란 분별심이 없는 본래 청정성을 지니고 있는 무심(無心)입니다.”

> **〈신심명〉에서 이르기를**
> **‘미움과 사랑 양변을 버린다면**
> **道는 환하게 명백히 드러난다’**
>
>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을**
> **내려놓으면 행복 이른다는 뜻**
>
>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서**
> **그 마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 스님은 “〈무문관〉의 공안을 다 사유하고 난 후 하나하나의 공안들이 구슬처럼 단주에 꿰면 하나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안거 후 공부한 것을 3년 동안 다듬어서 〈무무관 강설집〉으로 엮었다. 스님은 ‘백고좌’를 생각하고 선덕 스님들을 차례로 모시고 〈무문관 강설〉 법회를 열어나갔다. 그때 2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무문관 수행은 마무리 작업이었고, 수행 결실이 잘 맺어져 가는지를 점검하는 회향의 시간이었다”라는 스님의 말씀에 출가자는 부처님의 제자로써 자기검열에 엄격해야 함을 알게 됐다.

육지장사에는 다실을 겸한 ‘선다일미(禪茶一味) 갤러리’가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다. 지원 스님은 차의 맛은 물론이거니와 차의 효능에 대한 공부를 비롯하여 차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차에는 생차가 있고, 발효차가 있어요. 차를 발효하면 카페인 성분이 60%나 없어지고 테아닌(Theanine) 성분이 나와요. 테아닌은 뇌를 편안하게 해주어서 잠을 잘 자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차의 관계에서 차생활만 잘해도 명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명상을 하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알파파와 세타파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201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논문의 큰 줄거리를 보니 산소 결핍에서 치매가 오고 암이 오고 각종 질병이 온다고 해요. 호흡명상을 하면 산소 결핍을 막아주니 건강에 좋지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수행의 방법으로 수식관을 말씀하셨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다일미가 갖는 깊은 뜻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온 지원 스님은 포교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막연하게 ‘단전호흡이 좋다’ ‘명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왜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MZ세대들이 불교를 케케묵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실제 지원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일해 보니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 세납 65세에 동국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소통과 심리학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선문답이 최상의 상담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제로 하여 석사 논문을 썼다. 박사학위는 〈금강경〉 연구로 받았다. 차에 대해서는 월간지 〈차의 세계〉에서 연재하며 더욱 깊게 천착하게 됐다.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어 지원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조주 스님은 도(道)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끽다거(喫茶去)’라고 답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습니까?”

13면에 계속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